

코로나 사망·위중증 최다...17일 특단 방역조치 발표하나

사망 100명 육박·위중증 900명대·병상대기 1481명...방역 악화 정부 “수·목 지켜보고 판단”...거리두기 강화 조치 손실보상 관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특단의 방역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시행한 조치들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이번 주 수·목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이른 금요일인 17일께 사적모임 인원 추가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 중 숨졌거나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94명이 늘어 누적 4387명이다.

하루 사망자 94명은 지난해 1월 20일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694일 만에 가장 많은 기록이다. 종전 최다치는 지난 11일의 80명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그보다도 14명이 더 늘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위중증 환자도 900명을 넘어선데다 당분간 하루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여섯 연속(840명→857명

→852명→856명→894명→876명)으로 8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처음 9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수가 767명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필요에 의해 일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부터 발생한 입원 대기 중 사망자도 45명에 달한다. 지난달 첫째 주에는 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주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위중증, 사망자 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병상 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이날 현재 1481명에 달한다.

방역 지표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일단 이번 주 중반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맞는 조

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지만, 그 카드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17일에는 별도의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나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서 2주간 '긴급명령'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종료 시간도 9시로 당기는 등의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는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돼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와의 대담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가 가장 효과를 본 거리두기 정책"이라면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증 방역패스 적용 첫날에 이어 이틀째인 14일 오후 광주지역 식당가에서 전날과 같은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에 오류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의 한 식당 입구에 설치된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

외국인 유학생도 계절근로 참여한다

농어촌 인력난 해결 목적...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설했다.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2020년 3월~2022년 3월)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참여 외국인 범위도 확대한다. 유학생,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사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기존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내년 1월말까지 집중 실시...무안서도 AI 항원 검출

전남도가 최근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13일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장

육용오리 2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 방역지역내 58농가 238만8000마리의 닭·오리는 이동 통제하고,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 겨울철 한파 등 기온 하강으로 소독이 미흡하면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적극적인 소독 활동으로 AI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하루 중 기

온이 높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하는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 기간 가금농장은 차량 진입로와 축사 전실, 마당, 퇴비장, 집란실, 관리사와 차량·장비 등을 빠짐없이 소독해야 한다. 농장 진입로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고 출입차량은 2중 소독해야 한다.

축산시설은 차량 진입로와 대인 소독시설, 시설 내 차량 내외부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소독제 유효기간과 희석배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축산차량은 농장 진입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정식 소독시설과 고압분무기로 차량을 2중 소독해야 한다. 방역복과 덧신 착용도 필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입금
- 홈페이지 통해 카드연계 신청
- 선불형카드 행정복지센터 발급

광주시가 내년 초에 광주시민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8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내년 1월7일부터 14일까지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도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 17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사용하던 카드와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BC카드와 현대카

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재원 규모는 총 1469억원으로, 광주시가 1322억원(90%)을, 자치구가 147억원(10%)을 분담한다.

앞서 지난 11월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1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07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덕남동, 임야 투자
지분, 200평 개발호재多
매-4천만원. 010-3605-5000

삼가 인사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부친상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조문과 부의를 베풀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서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 부디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귀한 마음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故 송기숙 교수(님) 유가족 拜上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